

윤구병 <함과 됨>

제7강 - 지식과 도시의 형성과정
(1교시)

◆ 신화 해석의 중요성: 우리 사회 지식 형성 과정

제3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서양 사람들이 헤겔 이후부터 마르크스 이후까지 계속해서 동양을 별개의 종족으로 봐서 아시아적 생산양식 어쩌고 하면서 구박하고 천대하는 전제행정도 시이다. 이집트는 파라오가 지배하고 있었고, 중국은 황제가 지배하고 있었던 이야기는 조금 뒤로 넘기고, 서양 문화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연아식민지인 지중해 해안가를 끼고 지중해 해안가에 세워진 식민지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밀레토스라는 지역을 아시죠? 밀레토스가 어떤 곳입니까? 철학개론 배우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탈레스라는 이름은 압니까? 최초의 철학자라 알려진 탈레스가 밀레토스 출신입니다.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하는 거로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 방면에 다양한 재질을 가지고 있어서 천문학에도 일가견이 있었고, 늘 하늘을 보고 다니다가 개울 같은 곳에 빠져서 사람들이 가까운 것은 못보고 먼 것만 보고 다닌다고 비웃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일화가 있죠. 실제로 만물의 근원이 뭐냐 하는 것은 오랫동안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종교에서도 어떡해서 이 우주, 이 세상이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끊임 없이 묻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하나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현대 물리학자들이 매달리고 있죠. 우주를 이루고 있는 기본 소립자가 몇 개가 되고, 그것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끝없는 탐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하나인 우주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누가 이 큰 우주를 만들어 냈느냐, 혹은 저절로 이 큰 우주가 주어져 있느냐 하는 화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죠.

이야기가 좀 재미있어야 하니까 우리 쪽으로 돌아봅시다. 우리나라에는 천지창조 신화가 없었던 걸로 생각을 해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냐면, 단군신화를 해석하는데 웅녀설화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옛날 토템사상에 의하면 웅녀는 곰 부족을 상징하고 환웅은 호랑이 부족을 상징하여 부족끼리 결혼해 조그만 민족국가를 형성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근원이 어디에서부터인가 해서 올라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육당 최남선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신화학자 김열규 선생이 확산을 시킵니다. 너무 그럴듯한 이야기여서 거기에 넘어가 우리나라에는 토템과 샤만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창조신화는 없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짓는데, 이 시대에 아무리 조그만 부족도 천지창조의 신화가 없는 부족은 없습니다. 전부 나름대로 가장 큰 것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에 대해서 관심

과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해 내려고 애씁니다. 물론 설명 체계는 짜임새가 정교하고, 느슨하거나 엉성하기도 하지만, 없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별종이어서 신화체계가 없는 거냐 아니면 유실된 거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신화학자도 아니고 철학도에 지나지도 않고, 토tem과 타부에 대해서도 문외한이고, 마치 <어린왕자>에 나오는 것처럼 꼭 같은 말을 하더라도 아랍인 복장을 하고 나가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더니, 잘 차려입고 가서 이야기하니까 믿어주더라... 이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한 삼십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윤구병이 했던 말이라고 권위를 세워주질 않아요. 제가 해석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어 보세요.

단군신화, 삼국유사에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설화를 보면 환인의 아들 환웅이 아버지에게 땅에 내려가 중생들에게 혜택을 베풀겠다고 해서, 박달나무 아래로 내려와서 신시(神市)를 세우고, 혼자하기 힘들니까, 몇몇의 신들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멋있는 환웅에게 반한 짐승 두 마리가 찾아와, 환웅이 썩과 마늘을 먹고 100일을 견디면 짝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호랑이는 성격이 급해 참지 못하고 곰은 미련스럽게 참아서 환웅의 짝이 돼 장군을 봤다,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런데 호랑이는 우리말로 범이죠. 범하면 옛날에 자음은 잘 안 변하는데, 모음은 굉장히 잘 바뀝니다. 그것을 보면 범은 밤도 됩니다. 그리고 곰은 검도 되고, 굴도 되고, 감도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글자를 해석할 때 사전적인 정의라 해서 한 낱말을 비슷한 다른 말로 바꿔서 그 말을 알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을 보면 뭐라고 되어있어요? 하늘천, 땅지, 검을현, 누르황. 이걸 어떻게 해석 하나면, 처음에는 명사와 명사를 대비해서 하늘은 검이요, 땅은 누리다. 왜 하늘을 검이라고 보죠? 나중에 검, 굴, 구멍, 개마, 임금할 때 굴, 이런 것들이 전부 저기서 파생 된 건데, 우리나라 옛날 조상들은 빛의 간섭이 없는 하늘이 원래 색깔이라고 봤습니다. '하늘은 검이다. 그리고 땅은 누리다.' 이렇게 옛날에 하늘이라는 이름도 있었지만, 검이라고 가르친 곳도 있습니다. 개마고원을 왜 개마고원이라고 하나면 하늘에 달아 있는 봉우리라고 해서 개마, 고마, 구마, 다 같은 곳에서 파생되어 나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빛이 좀 비치죠. 밤도 깜깜하고 하늘도 깜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일 동안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면, 해가 나는 동안. 하얀 해, 온(백)해, 온해는 해가 비추는 동안, 온종일이라는 소리죠. 해가 비치는 동안에 자기와 함께 견딜 수 있는 자를 자기 짝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해가 비추자마자 밤은 달아나고 해는 가만히 남아 있다는 것이죠. 하늘과 태양이 같이 짝을 맺게 되어, 하늘이 태양의 아낙이 되었다. 이게 그리스 신화 책엔 거꾸로 되는 거죠. 우리 신화 책에서는 하늘이 여성이고 태양이 남성입니다. 저쪽에서는 우라노스 천공이 남성이고, 땅은 여성으로 상징되지요. 하늘과 해가 짝을 지어서 만들어진 게 무엇이냐... 땅. 이 지구도 그렇게 생겨났고, 달도 그렇게 해서 생겨났다. 그럴 듯한 거짓말이죠? 아무도 이것을 확실히 봐주지 않으니까 거짓말로 30년 동안 여기저기 귀에서 귀로 흘러 다니다가 사라지는 거짓말이에요. 어때요, 그럴 듯해요? (학생들: 네~)

그럴 듯하면 하나 더. 오행사상 있죠? 오행에서 기본색이 다섯 가지 색이 나오는데, 중국에서는 목, 화, 토, 금, 수가 오행이죠? 목은 동쪽과 푸른, 화는 남쪽과 불, 토는 중앙, 계절적으로 보면 봄과 가을 사이고, 금은 가을. 수는 겨울입니다. 그리고 동, 남, 중, 서, 북인데 실제로 목은 푸른색으로 나타내고, 화는 붉은색, 토는 누런색, 금(金)은 흰색, 수는 검은색으로 나타냅니다. 목화토금수로 나타나는 오행이 우리나라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곧 알겁니다. 우리나라는 구역토가 썩어서 흐르는 물은 없는데,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구역토가 전부 뒤섞이고, 썩어서 물이 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산자수명. 정말 물이 맑고 구비가 가파르고, 나무가 많기 때문에 계곡을 타고 흐르는 물이 맑습니다. 그리고 오행에 갑자기 쇠가 끼어듭니다. 금이 쇠지요~ 오행이 중국에선 푸른색, 붉은색, 누런색, 흰색, 검은색으로 되는데, 이 푸르다라는 말은 풀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붉다는 불에서 나오고, 누르다라는 것은 황토땅에서 나온 것이고, 희다하는 것은 해에서 나왔고, 검다는 하늘색으로 나왔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오행설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색채가 지정됐다면 색채가 훨씬 더 원초적이고, 전부 자연물로 났다. 쇠 대신 해가 들어가고, 물 대신 하늘이 들어가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물이 쇠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대신 하늘이냐면, 맑으니까. 물에서 맑다라는 것이 물이라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죠. 묽다, 맑다, 무르다, 전부 물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가장 삶에 밀접한 자연물에서 우리의 색채를 끌어내었다. 이게 민족주의적인 발언입니까? 아니죠?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참 좋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있다/없다와 이다/아니다도 구별을 못해내는데,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들이 철학자를 불러도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서 헛갈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다/아니다와 있다/없다가 구별이 안 되는 언어체계예요. 그것은 그리스 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에인아이(einai)라는 그리스 동사가 있다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이다를 가리킵니다. 라틴어, 독일어, 불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있다/없다하는 것도 가리키지만 이다/아니다도 동시에 가리키기 때문에 차이를 구별 못합니다. 그래서 존재론의 근본문제에 들어가면 늘 혼란을 일으키고 해매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면서 모든 사물을 모두 구별해주고 기준이 되는 기본 낱말에 대해서 혼동이 있기 때문에, 서구인들이 좀 동떨어집니다. 머리에 먹물들은 많이 들어있는데 구별은 잘 못합니다. 민족주의적인 발언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족은 이런 점에서 아주 좋은 언어를 물려받았고, 말을 부려서 쓸 수 있었던 우리 조상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 조상들이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있다/없다, 이런 것을 시시해 하고 존재와 무(無)하면 대단해 보이고 그렇지요.

윤구병 <함과 됨>

제7강 - 지식과 도시의 형성과정
(2교시)

◆ 도시의 형성 과정

지금까지 제가 했었던 것은 한편으론 우리의 시간의 축을 따라서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지혜의 함수인 사회가 있고, 공간적인 축을 따라서 공간적인 경험을 확장하는 것이 지혜의 함수가 되는, 서로 다른 원초적인 이야기입니다. 역사상에서 저희가 도려내진 농경공동체와 유목공동체라 해서 변하지 않고 원형 상태 그대로 남아 있는 일은 없는데요. 어쨌든 시간과 공간, 삶의 형태가 다름에 따라서 어떻게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게 되는가에 대해 이야기했었고요. 이제 마을 공동체에서는 한 개인이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은 하지 않습니다. 농경공동체에서는 마을 어른들이고, 유목공동체에서는 그 마을을 이끄는 수장들이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도시사회에 오게 되면서부터 지혜의 함수가 공간적인 확장도 아니고, 시간적인 경험의 축적도 아닌 세상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가를 재는 척도가 되는 새로운 공동체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도시사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제행령도시의 이야기는 잠깐 빼고, 해안도시사회는 식민지였던 지중해 연안의 해안가에 조그맣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배를 띄워서 무역을 하고, 사막으로 낙타를 타고 중국까지 장삿길을 연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이오니아 식민지 가운데서도 서양철학이 가장먼저 시작되었다는 밀레토스라는 도시사회를 잠깐 머릿속에서 그려봅시다. 이 도시사회는 이미 몇 천년 전에 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보나 유물, 유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 상상력을 통해서 이 도시사회를 다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 아시겠죠?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리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유목사회나 농경사회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농경사회에서 벗어나는 것은 범죄자가 돼서 쫓겨나거나 맞지 않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해서 그 사회에서 추방을 하거나, 삶의 큰 변화가 생겨 집단으로 떠도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뿌리 뽑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농사짓던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면 무엇을 먹고 삽니까? 이웃마을에 가서 먹고 산다고 한들 이웃마을에서도 왜 그전 마을에서 떠나왔냐고 묻고 질책하는 눈으로 보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사형신고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목사회도 마찬가지로, 잡혀 갔다가 도중에 야반도주를 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함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수장을 따라 목초지에서 목초지로 옮겨 다니던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서 독립적인 삶을 개척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죠, 아까처럼 범죄 행위를 해서 야반도주를 떠난다거나, 아니면 그 전체가 유랑민이 돼서 여기저기 흘러 다닌다거나,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쫓겨나거나 굶주려서 거렁뱅이를 하지 않으면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래서 마을사람과 가장 친한 짐승이 개였는데, 사실 개를 먹이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개를 길러봤는데 제가 먹는 것의 꼭 다섯 배를 먹습니다. 이 놈이! 처음에는 미워서 죽일 뻔했습니다. (일동 웃음.) 그래도 개를 기르거든요~

야밤을 틈타서 누군가가 와서 물건을 훔쳐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칼 들고 와서 강도짓을 하고 저항하면 죽이고 그럴 까봐 인기척을 듣고 멍멍거리면 준비하라고 키우는 거거든요. 농경민들이 기르는 것은 유목민들이 양 떼를 모는 개를 기르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경우죠. 농경민들이 가축을 기르면 개는 식량을 축내는 면에서 비효율적입니다 그 점에서는 닭과 돼지도 비슷해요. 식량을 축내지 않으면서 기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착한 소입니다. 소는 풀만 뜯어 먹으니까. 그런데 소 기르기가 쉽지도 않고, 뜯어먹는 풀이 좀 많아야죠, 소를 많이 기르려면 한겨울에 먹이를 줘야했었는데, 옛날엔 한겨울에 많은 소에게 먹이를 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용으로 한 마리 기르는 것으로 그쳤었습니다. 어쨌든 불량배가 되서 떠돌다가 강도나 절도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해꼬지하거나 먹이를 훔쳐가서 굶게 되는 것을 예비해서 자신보다 더 많이 먹는 개를 길러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해안도시를 이루는 사람들이 굶주려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해안에 정착한 사람들 혹은 농경공동체나 유목공동체에서 미움 받는 빼딱한 사람들입니다. 빼딱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른 말 안 듣고 지도자 말 안 듣는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의 빼딱이들을 보면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우직한 사람은 빼딱이가 안 됩니다. 이 빼딱이들이 해안 도시사회에서 장사로 먹고 삽니다. 이 사람들은 살판 났지요. 바보 같은 어른도 어른이라고 꾸벅꾸벅 죽어지내야 하는 일도 없고, 전쟁터에 앞장 세워 너 터프가이가 돼야 돼! 너 씩씩하고 용감하게 죽기 위해 앞장서! 하는 어거지로 훌륭한 전사를 만들겠다는 사람도 없고~ 대개 머리 좋은 사람들 중 몸 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몸 놀려서 살수가 없으니까 머리를 굴려서 사는 겁니다.

제가 농담 삼아서 나무는 직접 무기물에서부터 유기물로 합성을 하는, 예민하게 느낄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제자리 떠나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해결하니까 가장 온전한 생명체죠.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서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동물들은 이리 저리 뛰어다니면서 먹이를 만들어야 하니까 삶이 더 힘들어지고, 사람의 경우에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손, 발만 놀려서 살 수 없고, 머리까지 굴려야 하니까 가장 불행한 생명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에 동의 안 하십니까? (대답 없음)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에까지 진화를 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농경민과 유목민 단계를 거치고, 도시민이라는 이상한 부족들이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정착민을 거쳐서

유랑하는 유목민을 거쳐 정신적인 유목민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흘러들어 왔으리란 건 뻔하죠. 밀레토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인종전시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오고 페니키아에서도 오고 인도에서도 오고... 그런 사람들이 한 군데 좁은 지역에서 3차 상업을 통해 먹고 살 길을 찾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회 변화가 얼마나 급격했으리란 건 상상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보십시오.

우선 이집트에서 온 사람이 태양신을 상징하는 새를 믿는데, 그 새는 나에게 일주일에 두 번 쉬지 않으면 죄라 하고, 장사도 안하는데 그날 모이자 하면 '장사 끊어버릴 거야.' 라고 한다면 먹고 살 수 있겠어요? 또는 아침시간엔 조용히 명상에 잠겨야 하는 종교적인 전통에서 자라왔는데, 니가 아침부터 찾아와서 거래를 하자고 한다면 거래를 하겠어요? 어렵지는 수작이지. 이렇게 저마다 자신이 태어난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인 배경을 들이대면서 서로 소통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장애를 일으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길이 없죠? 그래서 농촌에서 왔든, 짐승을 몰고 다니다 왔든, 인도에서 왔든, 이집트에서 왔든, 자기가 살았던 모든 배경을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언어도 고집해선 안 됩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야만인을 가리킬 때 바르바로이(Barbaroi)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을 하고, 공동체를 이뤄 살고, 자기 문화에 대해 으스스한 마음이 들고 하니까, 자기들과 다른 말을 주고받는 사람들은 죄다 이상한 사람들이고, 야만인이라 생각하고 깔보게 되죠. 그런데 이 공동체에서 인도 말을 하면 야만인이다, 혹은 페니키아 말을 하는 사람은 야만인이다 하면서 상대를 하지 않으면, 이 좁은 지역에 모여살고 거래를 하는데 해양지역은 그 내부에 생산지가 없습니다.

어쨌든 외부에서 먹고 살 것을 끌어들이야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인데, 이 사람들이 서로 연대하지 않으면 주변의 유목공동체나 농경공동체에 가서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해안 도시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주 삶의 형태가 다양하고 자기 정체성을 잘 바꾸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장사를 하다가 갑자기 해적으로 바뀐다든지, 낙타를 타고 먼 길을 가면서 의젓하게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 흉내냈다가 어느 순간에 야적대로 변해서 마을을 습격해 싣고 끌고 온다든지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먼 길을 다니면서 중국에서 대진국인 로마까지 갔지만 그쪽 사람들은 지중해에서 비단길을 찾아 중국까지 내왕하고 중국에서 비단 같은 것을 수입해서 몸에 걸치고 바르는 것을 좋아할 수 있었습니다. 싣고 다니는 것 가운데 의식주에 필요한 유기물들, 밥이나 반찬을 해먹을 수 있는 것은 도시 근처에 있는 농경공동체나 유목공동체에서 물건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먼 길에서 가지고 오게 되면, 비를 맞아서 썩어버리고, 채소는 비를 맞지 않아도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주변에 생산 공동체들이 널려 있어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이렇게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나 하면, 만일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벼농사 짓는 곳이 어디입니까? 김포평야, 여주 이천이죠. 김포평야에서 서울시민이 쌀을 가져다 먹는데 어느 해에 흉년이 들어 생산에 결함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고스란히 그곳에만 의지하면 굶어 죽게 되죠. 그러니까 여주 이천에도 흑반을 대고 더 멀리는 호남평야까지도 흑반을 대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생산 대란이 일어나면 저쪽에서 끌어오고 저쪽에서 일어나면 이쪽에서 끌어오죠. 그러니까 도시는 자기 내부에 생산지를 갖추고 있지 못해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제국주의적인 확장정책을 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국주의적인 확장정책을 펴면서 필요한 일차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조직이죠. 내부에서 조직에게 대장간이 대주는 것이 뭡니까? 창과 칼이죠. 그러니까 농사꾼이 대장간에서 빌리는 것은 낫과 호미, 괭이인데, 도시사람들이 대장간에서 빌리는 것은 창과 활, 칼, 이런 것을 빌립니다. 왜냐면 농경민이나 유목민의 경우에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잘 해결하면 삶의 길이 열리고, 잘 해결하지 못하면 다치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나 연장으로서 낫이나 칼, 이런 것을 빌리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인의 경우에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도시인들의 삶을 해결하느냐 못하느냐의 관건이 됩니다.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각출하고 때로는 서로 맞서야 하는데, 칼과 창이라는 것이 뭡니까? 인간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설득을 해서 안 되고, 세뇌를 해서 안 되면 죽여야죠. 전쟁의 기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길, 그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해안 도시사회 내부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공멸이죠. 그리고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해도 엄청나게 큰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어느 날 종교적인 천재가 나타나서 우리 이런 종교를 만들자 하면 뼈뼋이들인데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을 묶을 길이 없어요. 사는 게 먼저고 철학하는 게 그 다음이다. 우선 살고볼 일이다. 그렇게 되면 이해관계로 뭉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관계를 따지다 보면 머리가 비상해 져야 하고 어기면 안 되니까 규칙들이 생겨나야 하죠.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인위적인 규범들과 약속들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에서 일치하는 점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라는 게 어땠죠? 우리 기억에도 한계가 있고, 말로 한 약속은 다음 순간 뒤집어 버리면 그만입니다. 행정전제군주도시에서 이집트나 중국 같은 곳에서 상형문자가 생겨나고 그것을 가지고 뭘 하는데, 그것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특권층의 행적을 기록하는 것들과 연관되어 상형문자가 생겼는데, 췌기글자, 바빌로니아나 아시리아인들이 썼던 췌기문자를 유목민들이 썼었습니다. 유목민의 경우에는 매일 고기 먹고, 치즈 먹고, 우유 먹고 하니까 얼마나 행복하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신체 구조가 그것만 먹고는 되지 않으니까, 바꿔서 농경민하고도 거래 해야하고, 거래 중간에 해

안도시사회에 있는 장사꾼들이 놓이게 돼서, 이 사람들이 획일화해야 합니다. 약속을 하려면 의식이 획일화되어야 하는데, 획일화시킬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무기가 문자입니다. 사상과 감정, 모든 것을 획일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가 문자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초기 문자라는 것이 전부 돼지 몇 마리, 소 몇 마리, 죄다 이런 것들 투성이입니다. 그러니까 거래하는 사람들이 서로 '돼지 열 마리 보냈으니 곡식 열 말 가져다 나오' 이런 식으로 경강상인, 경상상인, 의주상인들이 깨작거려 쓴 쪽지를 찢어 서로 붙여보고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랬듯이, 이 친구들도 최초로 그런 용도의 썰기문자를 만들어 쓴 겁니다. 이 문자의 발생과 연관해서 보면 재미있는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골에 할머니가 외상으로 먹은 사람들을 벽에 기입하는데, 박서방하고 브이자(V)를 그어놓고 일(/)자를 그어놓고, 홍서방하고 동그라미(○) 그려놓고 일자(/) 그어놓고 하다보니, 벽이 다 차게 생겨서 다섯 잔째 마실 때는 ■, 이렇게 그어놓고 하는 것들이 문자의 발생과 긴밀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도 버려야 한다. 가치관도 버려야한다, 버려야 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이해관계를 서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소통이 잘 돼야 하는데 버려야 할 것도 너무 많고, 불평등 거래가 장사에서 먹고 사는 비결이 있지 않습니까? 불평등 거래만이 상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불평등 거래를 하는데 상대방이 느끼도록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거래가 안 되죠. 그러니까 느끼지 못하게 해야 하죠? 자기가 돼지 키우는 마을 가서 그 나라 말을 배워야겠죠? 그 사람들의 정서, 사고방식을 익혀야겠죠. 그 전에 신화의 세계 속에서는 그럴 필요 없으니, 자기 세계에서 몽롱하게 살고, 몽상과 온갖 상상력의 나래를 펼쳤는데 이제 실증적인 조사 탐구를 하게 됩니다.

헤시오도스가 <신통기>를 쓰고, 헤로도토스가 역사의 아버지라 그러죠? 헤로도토스는 제가 예전에 읽어서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만, 리디아 같은 곳에서, 공기놀이가 아이들의 놀이로 발전을 했는데 아이들이 굶주리니까 굶주림을 잊어버리려고 공기놀이를 만들어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지금 현재로 말하자면 종족학, 각 민족의 민속이라든지 풍습 같은 여러 가지 것을 기록에 남기고 조사 연구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여러 가지로 해안도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농경사회나 유목사회는 모든 자산이 유기물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증서, 약속어음 같은 것들이 양 백 마리와 바뀌기도 하고, 배 한 척과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유가증권 같은 것들이 자산의 중요한 부분으로 편입이 됩니다.

유기물과는 달리 무기물로 이루어진 자산이 엄청난 축적으로 가능해지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고루 나눌 수 있는, 썩어버린 것이라면 고루 나눌 수 없지만, 이것은 장기보존이 가능하고, 거의 무한축적이 가능하니까, 부의 거대한 축적들이 이루어지면서, 변화들이 생겨나니

다. 그리고 지혜의 함수는 이미 시간적인 경험의 축적이나 공간적인 경험의 확장이 아닌, 얼마만큼 셈이 빠르고, 속셈이 멀쩡하느냐에 따르는 거죠. 누가 너 속셈이 뭐냐? 할 때 내가 속으로 뭘 하고 있느냐인 것이죠? 속으로 니가 얼마만큼 주판알을 번개처럼 튕기고 있느냐, 니 속셈이 뭐냐, 상대방의 속셈을 알아내고 자기의 속셈을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는 것이 불평등 거래를 하는데 주 무기가 되니까 머리를 써도 자꾸 그 쪽으로 쓰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저도 한때 거기에 앞장섰던 때가 있어요. 이런 말 듣고 있으면 썰렁하죠? 근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건 좋은데,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겨납니다. 인간이 단순한 마을 공동체와 유목공동체에서 벗어나 도시에 모여 살면서, 사고방식이나 감성에 거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과 몽상 같은 것들이 우리를 꿈속에서 놀게 만드는 신화공간이, 아주 오목한 현실공간으로 바뀌게 되면서 누구 마음도 다치지 않고 어떤 종교나 신념체계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이 세계를 해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 길을 찾다보니까 옛날에는 우라노스와 가이아가 나오고, 이런 식의 세계 해석이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라는 식으로 아주 드라이하고 쿨하게 해석하는 새로운 학문의 싹이 트는 겁니다.